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김도훈 라파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당연한 것은 하느님뿐

지난 6월 초순에 20여 년간 지독히도 깊은 연을 맺었던 담배와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주변에 풍기는 냄새도 그렇고 담배에 주체적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신세도 처량하고, 이번에 한번 독하게 마음먹고 끊어보자고 다짐하고 실행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앉았을 때, 글이 잘 쓰이지 않을 때, 책을 읽을 때, 티브이를 보면서, 운동하고 나서, 밥을 먹고, 술 한잔하면서, 침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 순간 담배를 놓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로 시작해서 담배로 끝났던 일상이 측은하고 처량해서 더는 담배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다짐했고 지금까지 겨우겨우 근근이 버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니까 또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순간에는 꼭 피워야 할 것만 같고, 이 순간에 피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참고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핑크빛 2021년 하반기를 꿈꾸며 시작한 우리나라가 변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방역단계가 완화되어 보다 두루 사람들을 만나, 신나게 수도도 펴고 맥주도 한잔할 수 있는 7월이 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4단계라는 극도의 긴장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잡았던 약속을 줄줄이 취소하고 다시금 '혼자', 혹은 '차분히' 이 시기를 견디어 내는 일만 남게 됩니다. 전에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며 짜증도 많이 나는데, 이 국면을 버티어내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을 생각하며 버티어냅니다. 당연히 누려야 했고 필요했던 것들이 특별한 규제 속에서 금지가 되어 버립니다.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지금은 견디어 낼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금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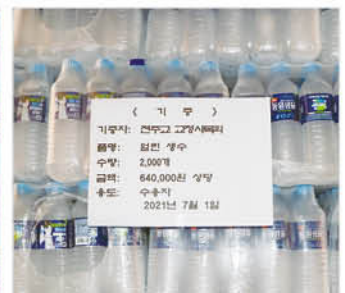
감히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요즘 저의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 중 하나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흡연할 때 담배는 저에게 당연한 권리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안 피는 사람을 이해 못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끊으니까 더 좋은 것들이 많음을 이제 압니다. 담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와 만남은 당연하였고 누려야 할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는 것이 민폐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시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새롭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거라 확신합니다. 전에 당연하다고 누렸던 것들도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가졌다고 여겼던 것, 믿었던 인간관계 등에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산 것이었고, 하느님만이 당연한 분이었음을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반면에 다시금 많은 것을 새롭고 설레게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가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거기에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 당연하신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이 질서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초연하고 여유로우며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6월 17일(목) 성앵베르센터에서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가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엄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사목국의 14개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부스를 마련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26명의 서품 2년 차 사제들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스에 방문하여, 활동사진과 50주년 기념 영상을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는 “본당 사목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목이라면, 교정사목은 담장 안과 밖을 연결하여 그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사목이다”라며 교정사목에 대해 꼭 필요한 사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2년 차 사제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 교정시설 옥서기 얼음 생수 지원



6월~8월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얼음 생수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22일 *서울구치소에 10,000병과 6월 30일, 7월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 8,000병, 7월 2일,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 4,000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날씨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19로 지쳤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지원 40,000병 중 10,000병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지원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납니다.

한명선 아퀼리나_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오래전 세례를 받는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모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필기시험일까? 실기시험일까?’

그 당시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저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대모님은 신앙 속에서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실기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 속에서 저는 성서를 열심히 읽고 성서 구절도 외우면서 필기시험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를 걷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실기시험에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심으로써 온몸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양있게 저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저였지만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곳이 어딜까?

젊은 시절부터 추리소설, 범죄 소설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수감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며 저의 마음은 구치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원죄 있는 전과자인가요? 10여 년에 구치소 봉사 활동하면서 수감자 형제님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의 분노와 욕심,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들을 조금이나마 편견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한 저를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곳으로 불러 주시니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신께 드린 기도를 저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 나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먼 훗날 주님께서 저에게 실기시험 합격이라고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시험 도중 장애물을 만나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구치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이 세상을 절망의 늪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는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사람들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들의 사랑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요. 또한 이 시련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희망을 품고 힘을 내겠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봉사자들은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그 불가능에 도전해 봅니다. 수감자 형제님들, 봉사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손을 꼭 잡고 사랑의 힘을 모아 기적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꼭 일으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모세 (2)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한번 좌절을 겪은 모세는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여 “낯선 땅에서 이방인”(탈출 2,22)으로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탈출 2,23),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모세는 12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신명 34,7). 스테파노는 최고의회에서 설교할 때 모세의 생애 120년을, 더 구체적으로 40살 파라오 궁궐 생활, 이후 40년 미디안 생활, 말년 40년 광야 생활로 이야기합니다(사도 7,23; 7,30; 7,36). 이에 따르면 모세가 80살이 되던 해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탈출 7,7참조).

마흔 살 모세는 혈기 왕성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양아들이었기에 정치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선과 정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80살 노인 모세는 육체적인 힘은 나약합니다. 동족들에게 잊힌 존재이고, 이방인과 결혼한 주변인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난 하느님께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미디안으로 피신하기 전, 동족에게 들었던 마지막 질문,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듯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탈출 3,11)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었소?’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탈출 3,13)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탈출 4,1)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쑥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든 그제든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탈출 4,10)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탈출 3,4) 이라고 대답한 이후에 놀랍게도 모세의 입에서는 내내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이후의 하느님과의 대화

는 정말 끊임없이 계속 모세는 투덜거림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파라오에게 나가서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의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탈출 5,22-23),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탈출 6,12),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 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탈출 6,30)

마흔 살의 모세는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범법자요, 살인자로 몰려 이민족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실패를 겪은 모세는 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모세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십니다. 실패했고, 전과자이고, 도망자이며, 패배 의식이 강한 그에게 하느님이 나타나고, 본인 때문에 더 일이 꼬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나타나, 그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힘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나타나시지만, 그런 이들은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정치적 힘, 재물의 힘을 믿는 이들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쉽게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이는 하느님을 쉽게 발견하고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하느님의 힘으로 해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투덜거림, 의심의 목소리를 버린 것은 파라오 앞에서 이집트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때였습니다(탈출 7,8~14,31). 이 기적들 이야기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구절의 반복입니다. 처음의 기적은 이집트 요술사도 할 수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작은 것에서 하느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느님의 놀라움을 보고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를 건너게 되고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탈출 15,2)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나의 힘은 무엇인가요? 내가 실패했다고 하여, 내 앞에 나타나있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고마우신 현대일 신부님께

하느님의 사랑과 신부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편을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듣고 동의서를 적으면서 주소를 옮겨 놓았었기에 오늘 이렇게
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

저는 지금 광주교도소에서 사형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큰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며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참 열심히 잘 살았는데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새 인생을 후반이 되는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이렇게 갇힌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구치소 있을 때 개신교 권사님의 전도와 사랑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곳 광주로 옮겨 온 지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신부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

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 속죄하면서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1. 06. 19.

광주교도소에서 귀한 사랑을 받은 OO 드림

* 한 독지자가 ‘바보의 나눔’을 통해 전국의 사형수들에게(종교 무관) 매월 영치금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치금을 받은 사형수가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교정사목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값진 나날이었습니다.

이곳 교정사목센터에 머물렀던 기간 내내 매 순간 행복하였습니다.

그동안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큰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 저는 퇴소 3일을 앞두고서야 지난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출소 후 야심 차게 시작했던 화장품 도소매업은 주택보증금까지 바닥을 치게 했고
결국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다고 생각되어 매일 근심뿐이었고 잇몸까지 통통 부어오르더니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던 저에게 교정사목위원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도 마무리해 주시고 센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셨습니다.

당시 처음 뵈신 신부님께서서는 어찌나 온화하셨던지, 따뜻한 눈빛으로 응대해 주셨던 그 날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생활관 입소를 허락해 주신 이날은 제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날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거하는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은 날이라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교정사목 관계자, 자매님께서도 그동안 어찌나 환대해 주셨던지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하는 죄송함이 빈번히 들고는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 한복판에서 3평 남짓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수입이 변변치는 못하지만, 손실 없이 운영되는 게 다행이지 하는 마음으로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신부님의 큰 기도와 사랑으로 결실된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위원장 신부님, 그리고 교정 사무국 직원분들
자매님들께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미흡한 저이지만, 주님께 봉헌되는 삶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바라시는 모든 것 이상의 축복을 위해
주님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감사한 신부님,
주님의 평화 속에 늘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 07. 02.

히야친토 올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12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6/9~7/15)

2021년 6월~7월에는 김명관, 김숙자 제노베파, 김재우 미카엘, 김창연 소화데레사, 박정숙 아벨로니아, 스티븐 현요셉, 이귀란 율리아나, 장규태 바오로, 장정순 데레사, 정양미 가브리엘라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한동수 요셉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밀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신한 100-019-558299

우리 1005-700-335190
하나 209-910017-31705

국민 375301-04-003539